

##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확정

도, 위원회서 심의  
2022년까지 5년간  
42개 세부사업 추진

전북도는 20일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년간 3대 분야(동반성장, 투명공정한 공정거래,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를 중심으로 11개 실천과제,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함께 크는 동반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재기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내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대중소기업 상생문화정착, 금융취약계층 지원지원,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긴급자금지원,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 운영 등의 27개 세부사업이 시행된다. '투명 공정한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예방 및 민생침해근절, 소비자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교육, 유통산업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계획 수립 등 7개 사업을 이행한다.



20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의원,대학교수 및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제1회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의 주제로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실천과제, 세부사업 등이 포함된 '전북도 경제민주화지원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또한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복지 및 인권향상, 노사민정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향후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수요자와 전문가

의 의견수렴, 실태 조사 등을 꾸준히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제안도와 상징성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전북도가 경제주체 간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덕진연못 수질문제 개선 해결책 마련된다

환경부, 전주시에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통보

전주시민들의 친수공간인 덕진연못이 정부의 중점관리대상에 포함, 갈수록 악화돼온 수질을 개선할 해결책이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정부의 중점관리 지정이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시는 덕진연못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해부터 환경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최근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환경부의 지정계획 통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덕진연못에 대한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과 추진 계획을 마련, 환경부에 제출할

차례 협의해온 결과 최근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성과를 거뒀다. 동시에 덕진공원 유역에 LID(저영향 개발) 시설을 설치해 연못 상류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강우 시 하천의 유량 증가와 맑은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덕진공원 유역 LID그린빗 물인프라 조성사업도 전개해 왔다. 덕진연못에 대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유입 수원인 연화천의 수질개선 △연못 내 퇴적물 준설 △추가 유입수원 확보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거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질개선책 · 추진계획 제출  
환경부 검토 거쳐  
최종 지정여부 확정키로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질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덕진연못에 대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최종 확정한다. 덕진연못은 후백제에 조성돼 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장소로 그동안 전주한옥마을과 더불어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하지만 주변의 도시화에 따른 개발 영향 및 유입 수량 부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서 수질개선이 요구돼 왔지만 저수지 준설 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 해부터 환경부에 덕진연못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건의, 정동영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환경부와 수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 병)은 "덕진연못은 고려시대부터 왕궁 등 각종 민간건축물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이자 한옥마을 천만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이자 전주 인구의 80%인 53만명이 거주하는 주거 중심지"라며 "이번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으로 덕진연못은 수질개선을 통해 전주시 내 수변·휴양형 저수지(연못)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덕진공원은 전주시민들의 수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자,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장소"라며 "덕진연못이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되면 수질개선을 통해 덕진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거침없는 여자 컬링 "먼저 4강 간다"



미국전 9-6 승리 5연승 이뤘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미국을 넘어 파죽의 5연승을 질주하며 4강 진출을 가장 먼저 확정했다.대표팀은 20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7차전 미국과 경기에서 9-6으로 승리했다. 스킵 김은정(28)을 중심으로 서드 김경애(24), 세컨드 김선영(25), 리드 김초희(22)가 출전했다. 김영미(27)는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랭킹 8위 한국은 전날 무패의 스웨덴(7-6)에 일격을 가한 상승세를 이어 랭킹 7위 미국도 제압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랭킹 톱 5 중 무려 4팀을 무릎 꿇었다. 한국보다 랭킹이 높은 팀 중 5개 팀을 꺾었다. 예선전적 6승1패가 된 한국은 1위를 지켰다. 하위 6개팀이 4패 이상을 안으며 한국은 예선 2경기를 남기고 4강에 선착하게 됐다. 4엔드까지 2-3으로 끌려가던 한국은 5엔드 선공의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김은정이 더블 테이크 아웃에 성공하며 대량 득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마지막 스톤을 하우스 중앙에 놓는 데 실패했다. 한국은 스톤은 물론 순식간에 4점을 추가하며 전세를 뒤집었다.



1점씩을 주고받으며 8엔드 미국이 2점을 추가하며 7-6으로 따라 붙었지만 9엔드에서 완벽한 드로샷으로 2점을 달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3점차 여유를 두고 마지막 10엔드에서 하우스 중앙을 점령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친 한국은 1개의

스톤을 남겨두고 미국의 악수를 이끌 어냈다. 21일 러시아 출신 선수(OAR), 덴마크전을 남겨 두고 있는 한국은 준결승을 앞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군산,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청와대는 20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공장 폐쇄결정이 내려진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